

배포일	2016. 7. 5.(화)	배포담당	홍보팀
담당부서	발전기금 기획팀	문의	변영현(02-871-1621)

제목: 바이오엠티에이 유준상 대표 서울대 치대원 연구기금 1억원 기부

- 바이오엠티에이(BioMTA) 유준상(치의학 81-87, 55세) 대표가 '치대 연구기금' 1억원을 기부했다.
- 이에 서울대는 6월 27일(월) 총장실에서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, 행사에는 성낙인 총장과 유준상 대표를 비롯해 노상호 치의학대학원 학생부원장, 윤석근 바이오엠티에이 부사장 등 주요 교내 인사들이 참석했다.
- 성낙인 총장은 "우리나라 치의학 분야의 발전을 주도하고 계신 대표님의 이번 기금은 열린 지성과 참 인술로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치의학대학원의 비전을 실천하는 데 소중히 활용하겠다"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.
- 유준상 대표는 자연치아 살리기 운동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해 온 개업의로 "늘 모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"며 기부의 소회를 밝혔다.
- 2010년 유준상 대표가 설립한 바이오엠티에이는 세계 최초로 수경성 순방향 근관내 이식재와 이식술을 개발해 최근 바이오의학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벤처기업이다.
- 유준상 대표는 서울대 치의학과 졸업 후, 대학원에서 구강악안면외과 석·박사 학위를 받았으며, 현재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겸임교수, 서울대치과병원 임상중개센터 전문위원,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회원으로 의사와 사업가,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다.